



[산업동향] 美, 한파 및 폭설 피해 농가에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가축 보상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미국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농무부(USDA)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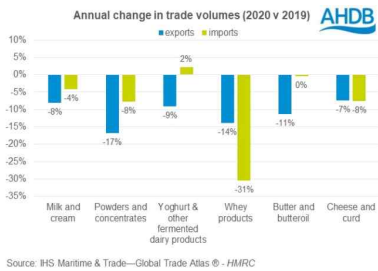
최근 USDA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지역 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가축 보상 프로그램 및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재해 또는 사료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가축에 대해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DA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연 재해에 따른 손실과 질병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권고하며, 피해를 입은 가축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가축수를 기록하고 구매, 생산, 예방접종 기록은 물론 은행 대출 문서 등도 보관해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동식물검역소(APHIS) 소속 수의사를 통해 농가의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평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시 APHIS는 추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가축의 사체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dairyherd.com, 2월 17일 >

[교역동향] 지난해 영국 유제품 수출입 모두 감소

- 수출량 및 수입량 2019년 대비 각각 10%, 6% ↓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역이 제약을 받고 유제품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영국의 유제품 수출입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유제품 수출량은 총 132만톤으로 2019년 대비 10%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분유 및 농축액이 전년대비 17%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치즈는 7% 감소하며 총 193천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한 반면 2018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제품 수입량은 129만톤으로 2019년 대비 6% 감소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한 반면 버터는 보험세를 유지했고 요거트 및 기타 발효유제품 수입량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청 제품 수입량은 31% 줄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치즈와 커드 수입량도 8%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국은 지난해 무역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에는 가공을 위해 아일랜드 국경을 넘어 운송되는 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금년 브렉시트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물량이 제외될 경우 영국은 유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출처 : foodincanada.com, 2월 18일자>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